

협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무더운 여름의 시작과 함께 직원 인력개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장부터 사원까지 14차에 걸쳐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이번 교육 중 1차 사원교육과정(7월 26일~28일)을 통해 새롭게 달라진 2004년 인력개발교육을 살펴본다. <편집실>

한 여름밤의 경영체험 교육

-사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3일간 집을 떠나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아침부터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햇볕은 뜨거웠고 고속도로는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피서객이 많아서 인지 고속도로는 이내 정체가 시작되었고 떠나는 마음이 다소 무겁기까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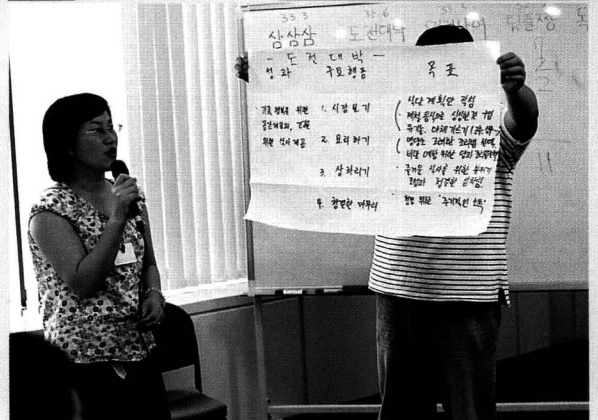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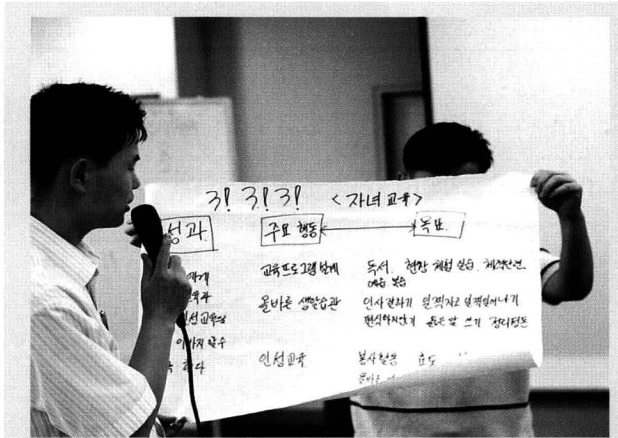
교육이 시작되기 전 짧은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교육을 위한 조를 편성했다. 27명이 5개조로 편성되었다. 3!3!3!, 도전대박, 팀플짱, 열정남녀, 독수리 5형제 등의 조 이름이 정해졌고 조장을 결정했다. 우리 조는 독수리 5형제였다. 남자 4인, 여자 1인으로 구성되었고 협회를 지킨다는 거룩한(?) 사명감을 받들어 독수리 5형제를 조이름으로 정했다.

일짱 만들기

요즘 일짱, 몸짱, 말짱이 유행하면서 스타가 된 사람들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 '일짱' 만들기가 사원교육의 첫 주제가 되었다.

- * 자신이 산출해야 할 성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 * 높은 업무성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만들고 있다.
- * 생산적인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나의 업무성과에 앞서 가정주부로서의
성과를 주요행동과 목표로
나누어 조별로 발표하는 모습



일짱이 되느냐의 여부는 이런 원칙을 자신의 몸에 베일 수 있도록 습관화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책상 위에 쌓여있는 서류·자료들. 지난번에 보았던 그 자료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면 한참을 헤매야만 볼 수 있는 자료를 떠올리며 홍성욱 강사가 소개한 자신만의 노하우 자료정리 10가지의 원칙을 메모했다.

또한, 조직에 속해 있는 지식근로자들은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공헌에 초점을 맞춘다. 다소 계산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교육 두 번째 주제는 가상으로 회사를 설립, 레고로 자동차를 생산, 납품하는 Simulation of Management Game으로 기업경영의 사이클을 체험하고 경쟁적 시장을 이해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사업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재무제표까지 작성해야 되나, 도대체 왜 이런 것이 교육과정에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게임이 시작되자 모두들 진지해졌다.

게임방식은 일단 조원 6명 중 사장·경리이사 겸직 1인, 영업이사 1인을 뽑고 나머지 4인은 생산을 담당



▲상념에 잠긴 '열정남여'의 임신섭, 이석중 사원



▲토의내용을 정리중인 '3133' 조의 정명의 사원



▲'독수리 5형제'에게 토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홍성욱 강사

체크해 봐야겠다.

일짱 만들기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간간히 ‘골든 도전벨’ 시간이 있어 퀴즈가 출제되었다. 1등한 조의 조원에게는 복권이, 조장에게는 강사의 서명이 담긴 저서 「자유롭게 일하는 아빠」가 상품으로 주어졌다. 1등은 도전대박 팀! 대박이 났네 그려.

Simulation of Management Game을 통한 기업경영 체험

하는 회사를 구성하였다. 그 다음은 레고로 트럭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과정인데 첫번째는 같은 모델을 납품하고 두번째는 조마다 스포츠카 모델을 개발하여 입찰방식을 통해 납품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납품수량을 결정하여 고객과 계약을 작성하는 일, 환경오염·산재발생 등에 벌점 부과, 약속 시간 내의 자동차 생산·납품, 불량품에 대한 위약금 부과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일이 없었다. 특히 스포츠카 모델을 개발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단계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료도 파악하지 않은 채 모델
개발·생산능력 향상에만 몰두
했던 올렸던 독수리 5형제. 22대
의 당초 목표량을 7대로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해졌다.

경영결산을 한 후 결과를 발표
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사 사장은
강사의 혹독한 질책을 받았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주먹구구식 경영을 한 거냐. 구
입할 수 있는 재료의 수량도 파
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목표량을
결정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다행히 손실
없이 이익을 냈다.

서로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담당 업무를 소화해 내느라 많
은 노력을 하였고, 계산에 익숙
치 않아 이런 거 못한다는 말을
연발하면서도 재료비 계산을 위
해 열심이었던 우리 조 경리이사의 모습. 인상적이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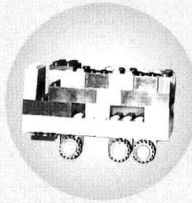
성공하는 기업과 실패하는 기업의 차이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과로 연결시키는 실천
력에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또한 21세기 지식근로



▲재료 구입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될 수 없다.
'도전대박'의 우병창 사원과
정광훈 사원



▲제작하여야 할 트럭의 사진을 놓고 구입할 재료를 파악 중
인 '독수리 5형제'와 '열정남여'



자는 보다 현명하게 일하고 높은 성과를 산출하여 조
직에 공헌해야 하며, 조직이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이익과 비용개념, 시장개념 그리고 개인 업
무의 성실한 수행의 중요성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